

美 국가 기도의 날 “주여 회개하오니 미국을 회복하옵소서!”

올해로 70주년인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남가주 목회자들과 한인들이 한 마음으로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한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지난 6일, 온라인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남가주 연합기도회는 어느 때 보다 회개와 각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바다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기도회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음에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다.

기도회는 회개 기도를 시작으로 △회개 운동 확산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미국의 지도자와 평등법 저지, 아시아 증오범죄 중단을 위해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국 교회와 북한을 위해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복 있는 백성”(시144:15)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신승훈牧사는 “미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개최된 2021년 미국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연합기도회 ©기독일보

싶어 세워진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복을 주셨고,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평등법이라는 악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려

고 한다”며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미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제사장의 국가가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전했다.

자마 전 대표 강순영 목사는 “성경에 기초한 헌법과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성경적 교회와 가정, 학교를 세워 세계를 섬겼던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떠나 이제는 반 성경적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미국은 이대로 침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

반듯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미주 한인들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의 중심이 되어 미국의 회복을 위한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도회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샘신 목사(오직예수선교회), 강순영 목사,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등이 인도했으며, 박종술 목사(순 무브먼트 디렉터), 김대준 목사(엘에이 비전교회), 알렉스 양 회장(크리스천헤럴드), 오세훈 목사(세계소망교회), 이호우 목사(좋은소식교회), 변재령 목사(은혜한인교회), 스티브 강(KADC회장),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 김영진 목사(기쁜우리교회), 김영환 목사(나성순복음교회), 김재권 장로(새생명비전교회), 추화자 사모(세계기독교성기독교운동), 유하진 권사(KCWU 남가주회장), 김수희 권사(큐티패밀리미션), 오윤태 목사(순 무브먼트), 조현영 목사(큰빛감리교회)가 1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다.

김동욱 기자

‘국가 기도의 날’ 선포한 바이든 대통령, ‘하나님’ 과 ‘성경’ 언급 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6일 보도했다.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가 기도의 날을 알리는 대통령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복에 대해 신념과 양심에 따른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국민들을 초대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회는 개정된 일반법 100-37에 따라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며 “이 날에 우리는 목적과 결의를 갖고 연합하며, 초창기부터 우리 민족을 정의하고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 핵심 자유에 다시 헌신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종적 차별 금지, 아동 노동에 대한 필수적 권리, 장애를 가진 미국인의 권리 등을 포함한 도덕적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기도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세대에 걸친 종교적인 활력과 다양성이 현저한 국가를 만든 것은 미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모든 미국인이 기도할 권리’ 덕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저명한 기독교 보수주의

자들은 이날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 기도의 날 선언문에는 11차례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발표된 그것에는 2번 포함됐다.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데이비드 브로디 정치 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어떻게 기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가? 물

론(바이든은) 기후 변화와 인종적 정의에 대해서는 언급한다. 정말 애처로운 일이다. 그러나 놀라운 일도 아니”라고 했다.

‘갓 레스 아메리카’(God Less America) 저자인 보수와 라디오 진행자 토드 스타니스 역시 “바이든의 경건한 국가 기도의 날 선언에 관해: 민주당의 문제는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의 이번 선언문에는 성경 구절도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언문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를 인용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경구절 대신 흑인 민권운동가인故 존 루이스가 “인간은 이 행성에서 하나님과 가장 역동적인 연결고리”라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국가 기도의 날은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처음 제정됐으며, 이후 모든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714)718-5239, (213)531-7215
admin.kor@itsla.edu
www.itsla.edu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2021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온라인 수업 제공 유학생 1-20 명급

■ 모집 학위과정 및 지원자격

학위과정	지원자격
MATS (신학 석사) M.Div (목회학 석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D.Min (목회학 박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졸업자 교육부 인가 M.Div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 장학금
2021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장학금 혜택
목회자(30%), 선교사(40%) 장학금 혜택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1년 5월 10일(월)~5월 28일(금)
합격자 발표	2021년 6월 10일(목)

■ 입학 전형료 및 수업료

학위과정	입학 전형료	학점당 수업료
MATS (2년)	USD 50	USD 250
M.Div (3년)	USD 50	USD 250
D.Min (2년)	USD 100	USD 350

■ 여름학기 일정(5주)
7월 5일(월)~8월 6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714)718-5239, (213)531-7215 /admin.kor@itsla.edu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
이영훈, Ph.D.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한선희 목사 “신천지, 미주 주요도시에 모두 퍼져있어”

‘이단의 이해와 신천지’ 주제로 세미나 “포교전략 진화하고 있어”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가 4월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이단의 이해와 신천지’라는 주제로 이단세미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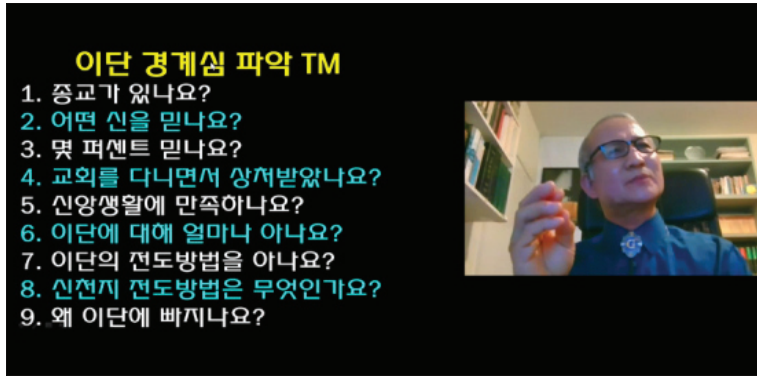
주안에교회(담임 최혁 목사)의 초청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4차례 모두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됐으며, 강사인 한 목사는 현재 신천지의 포교방식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남가주 지역을 비롯한 미주 내 주요도시에 이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에 한인교회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 신천지의 포교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신천지의 대표적인 기성교회 포교전략인 가나안정복 7단계와 관련, “이리의 옷을 입고 정탐해 들어와 성도들을 살피고, 그중에 알곡을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결국은 조직을 점령한다”면서 “그들에게 우리 기성교

회들은 ‘바벨론교회’로 지칭되며, 우리가 그들의 밥이고 추수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활동의 특징에 대해 한 목사는 “충성하던 성도가 갑자기 담임 목회자와 거리를 두거나, 반대로 갑자기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신천지에 포교됐거나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전도하거나, 생활 속 구석구석 파고들어 다양한 형태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위장세미나로 포교하는 방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정통교단을 가장해서 미혹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 목사는 “신천지인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20-30대의 젊은 층이 전체 비율에서 70-80%가 되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디도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만일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한 두 번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



한선희 목사가 신천지의 새로운 포교방식인 TM(텔레마케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면 거리를 뒤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의를 진행했던 28일은 신천지의 진화된 포교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한 목사는 “신천지 포교법은 매년 진화하고 있는데 요즘은 TM이라는 텔레마케팅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정보가 파악된 사람에게 전화해서 연애나 취업 등 관심분야를 미끼로 접근해 신천지센터로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TM 방식에 대해 한 목사는 “첫사랑TM은 대상자에게 잡

지사 기자로 가장해 전화를 걸어 첫사랑이 당신을 찾고 있다면서 이벤트로 유인하는 방식을 쓴다. 실제 첫사랑이 쓴 것처럼 제작한 쪽지와 선물을 전달해 현혹하고 있다”면서 “전공과 가치관TM은 대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전화를 했다고 속이면서, 포교 대상자의 전공과 취업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다니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 만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정보파악과 관련한 TM과 관련, 한 목사는 “신앙심TM은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질문으

로 신앙심을 파악하는 곳이다. 주요 질문은 하나님을 몇 % 의지하는지, 또 성경은 몇 % 믿는지, 신앙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프리 카로 가라고 하면 갈 마음이 있는지 등이 있다”면서 “이단 경계심 파악 TM도 있는데 이단의 접근 방법을 잘 안다면 포교하기 쉽지 않기에 이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 이단대책을 위한 설문조사로 가장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본 신앙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신천지의 포교방법을 아는지 등을 역으로 질문한다”고 고발했다.

한 목사는 신천지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미인계 포교방법도 폭로했다. 문제의 화면에는 한 미모의 여성이 대상자인 남성에게 카톡을 실수로 잘못 보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놓고, 친근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가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고 현혹되는 이들이 많다고 한 목사는 경계를 요청했다.

특히 한 목사는 “최근 이만희가 2021년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열매가 가장 많은 해로 정하자’고 지시했다”고 경계를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기쁜우리교회 펜데믹 이후 첫 현장 대면 예배 드려



지난 2일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재개한 기쁜우리교회 예배 현장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코비드19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남가주 교회들이 점차 현장 대면 예배를 재개하고 있다.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2일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작년 3월, 코

로나19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지 13개월 만에 드려진 현장 예배였다.

첫 현장예배에는 교인들의 약 40%인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보였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앞으로도 현장예배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김경진 목사는 “펜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성도들을 만나다가,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펜데믹 기간 모든 성도들이 더욱 연합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라구나힐스교회 2021년 장학생 선발



2019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8명의 학생들과 장학회 이사들 ©교회

라구나힐스교회(담임 립학춘 목사) 장학회(회장 최병철)가 2021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가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금년도에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다.

선발된 장학생 5-10명에게는 각 2,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 지원서는 라구나힐스교회 웹사이트(www.lagunachurch.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신

청 마감은 오는 5월 24일(월)까 지다. 신청자들은 1차 서류 전형 후 2차 인터뷰를 거쳐서 최종 선발한다.

제출한 지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치 않으며 발표는 교회 홈페이지와 개인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lagunakumc@gmail.com LHKUMC Board of Scholarship (라구나힐스교회 장학회)

주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립니다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음악학 석사·박사 과정 개설

기독교 철학과 리더십 교육으로 성숙한 음악인 양성 전세계 무대로 하나님 섬기는 전문 음악인 및 지도자 배출 실기 교육 보완된 100% 온라인 음악 교육 과정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이하 WMU)가 음악학 석사과정(MA in Music)과 교회음악학 박사과정(Doctor of Church Music)에 대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그동안 미주 한인 신학교 가운데 온라인 교육을 선도해 온 월드미션대학교는 음악학에서도 실기적인 부분을 보완해 온라인 음악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 계획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는 펜데믹 기간 진행된 온라인 수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실시간 음악 교육의 가능성을 실현했다. 또한 하이브리드 코스를 마련해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마음껏 실기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는 이론과 실시가 병행되며, 음악을 통해

사역지에서 하나님을 섬길 전문 음악인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휘전공 학생들에게는 실제 오케스트라 리허설과 연주를 매 학기 실시할 만큼 철저하다. 또한 월트디즈니 콘서트홀과 지퍼홀과 같은 유명 공연장에서 꾸준히 연주회를 개최할 만큼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돕는 것으로 유명하다. 음악학과장 윤임상 교수는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는 이론과 실시가 철저히 병행되며, 음악을 통해 사역지에서 하나님을 섬길 전문 음악인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음악과 설립이래 지난 16년 동안 전세계를 무대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음악학 온라인 프로그램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선교지 음악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선교지에서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공인된 미국 대학교의 음악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대학 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신학대학으로 이화여대 음악대학 김영애 겸임 교수, LA 신포니에타 김용재 지휘자, 파라과이 국립 교향악단 박종휘 수석 객원 지휘자, 할리우드 MI 음악학교 키보드학과 이은정 교수, LA 마스터 코럴 소프라노 신선미, LA에서 활동하는 테너 오유영 목사 등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유명 음악인들을 배출했다. 음악과 에스터 윤 교수는 “전공분야 실기와 연구에 우수한 전문 실력을 갖춰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더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 학생 및 졸업생들이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개최했던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0주년 음악회

욱 다양한 사역현장에서 음악적, 영적 지도자들로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는 교회 음악을 포함해 재즈, 블루스, 라틴, R&B, 팝, 락, 재즈피아노, 앙상블, 클래식, 현대음악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경 신학과 실천신학 교육을 통해 기독교 철학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음악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소양과 성숙한 인격을 겸비한 사역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욱 기자

기독교 BTS가 수상한 ‘밴플리트 상’... 밴플리트, 그는 누구인가?



‘2020 밴플리트상 시상식’에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플리트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BTS)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POP의 대표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과 미국의 한국 전쟁참전용사, 대한상공회의가 2020년 10월 7일 ‘2020 밴플리트상 시상식’에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플리트상’을 수상했다. ‘밴플리트상’은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 6.25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이름을 딴 상이다. 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은 수상소감 중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을 우리는 양국(한미)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희

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밴플리트 상’이 화제가 되었고, ‘밴플리트’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밴플리트, 과연 그는 누구인가? 밴플리트는 미 육군의 군인으로 1차, 2차 세계대전, 6.25 전쟁까지 참전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제8군 사령관 직을 맡아 대한민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한

국의 현대화와 미국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 퇴역후에도 종종 방한했으며, 미국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고 평생 한미관계 발전에 크게 헌신하였다.

특히 그는 6.25 전쟁에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었다. 당시 밴플리트 주니어는 공군 중위로 참전, B-26 폭격기 조종 임무를 맡았었다. 27세였던 그는 1952년 4월 4일 북한 순천 지역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포격을 맞고 실종됐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들은 참모들은 “수색을 확대해 밴플리트 주니어를 찾자”고 건의했지만, 밴플리트 장군은 “내 아들을 찾는 것보다 다른 작전이 더 중요하다”며 수색 작업을 중단시켰다.

밴플리트는 이후 부활절을 맞아 실종 군인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부모가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밴플리트 장군 부자(父子)의 이같은 일화들이 전해지면서 그들은 ‘노블레스 노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는 찬사가 잇따랐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2014년 밴플리트 부자를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2020년 6월, 미국 LA 총영사관이 주최한 ‘한국 전쟁의 역사’ 세미나에 참석한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지프 맥크리스천(LA 거주)이 새로운 증언을 했다. “나의 외삼촌은 한국전 당시에 전사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포로가 되어 결국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을 마쳤다. 이는 옛 소련내부 인민위원회 측이 자신에게 알려준 내용으로, 육군 정보국 참모차장을 지낸 자신의 부친 역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한다.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외에도 러시아 시베리아에 포로수용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의 유해가 있다. 또 북한 땅에는 140여명의 생존 국군포로와 4만 여구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유해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은 6.25전쟁 당시 22개 참전국 중에서 가장 많은 180만여 명을 파견해 전사 약 34,000명, 실종 3,700여명 등 약 13

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출처:국가보훈처).

이들의 이야기를 타류 영화로 제작중에 있다. 특별히 올해 한미동맹 71주년을 기념하여 1부 “밴플리트의 기도- Unreturned Heroes-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 2부 “박순천의 기도- 잊혀진 사람들”로 기획했다. 그것은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5개국 로케이션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모르는 후대에게 한국과 미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우정과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총 제작비는 120만불로 한화로는 14억이고, 미국 공동제작비 10만불이 필요하다. 한화로는 1억2천만 원이 든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작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동독선교대 표 박상원 목사

Advertisement for 'Righteous Outlaw' featuring a book cover and a testimonial from a pastor. Text includes: 'Righteous Outlaw', '빛은 그를 의인하게 하였네',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원), 주선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대대표), 송정영목사(복음선배 공동대표), 권은목사(주필로교회대표), 신정민목사(동일한 대표이다), 유관지목사(동일로교회대표), 김민석목사(KCC 공동대표)', '영희 목사는 어떤 면에서든 추천할 수 없습니다. \$20/편 + \$5 우송료', '기독교동독선교대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sales. Text includes: '이번에는 무슨 차를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차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Large advertisement for Grace Mission University. Includes logo, name, accreditation (ats, ABHE, TRACS, CHEA), and contact information. Text: 'Grace Mission University',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건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BHE, TRACS, CHEA',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 운영, 한국어 및 영어강의, 스페인어, 중국어 동시통역,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Hybrid 강의 (대면 미팅 및 Zoom Lecture, 통신)', '이벤트 1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접수 후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월 500불, 6월 300불, 7월 15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 2 화상 및 Offline 입학설명회: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6월 17일(목) 오후 3시 (Offline) 입학설명회, 6월 22일(화) 오후 2시 (영 어) 입학설명회, 7월 8일(목) 오후 4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gm.edu/online), Admission Zoom Interview : 213-993-4154(pw:2020),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714-525-0088(Ext 101)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5

“아름다운 선교지 계승을 이루기 위하여(2)”

“Mexico All Mission” 우리 신학교와 남부 치아파스 교회 개척 및 예배당 건축사역 등을 통칭하여 퍼밋을 받은 재단법인의 이름이다. 약칭 M.A.M.(맘)이라 하였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겠다는 선교사의 각오가 담겨 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먼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주 멕시코칼리시에 위치한 본교는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교’다. 학년별 15명씩 총 60명을 정원으로 정했다. 과거에는 90명이 넘을 때까지 학생들을 수용하고 훈련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전원이 합숙하며 지내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세 가정의 전임 선교사들이 담당하기 가장 효율적인 인원을 60명으로 정했다. 이제는 그 정원을 지키면서 학사를 돌보고 있다. 각 노회에서 추천받은 학생이 입학하여 4년간 풀타임 신학과정을 전원 합숙하며 훈련받고 있다. 학교 설립의 목적이 멕시코 현지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영성과 인성까지도 훈련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지도자가 필요했다.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멕시코 교회의 미래는 없었다. 영성과 인성, 목회의 역량들을 통틀어 높은 수준의 실력을 쌓아 사명감 있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그다음으로는 어디에 학교를 세우느냐였다. 전인적 리더십을 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다. 여러 곳을 살펴다가 멕시코칼리를 택했다. 이유는 하나다. 남부 치아파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당시 시외버스를 갈아타면서 3일 밤낮을 가야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래사막, 온통 벌판뿐이었다. 여름철 기온은 화씨 12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광야, 사막으로 정했다. 사방 어느 곳도 보아도 모래벌판 뿐인 곳. 오직 위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 그렇다. 우리 신학교의 지금까지의 성장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것이다.

졸업한 신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기도 모습이었다고 한다. 사모 선교사님들의 주방에서의 사랑의 섬김이었다고들 한다. 가정의 문제로 슬퍼하는 학생들을 위로하며 같이 울어주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그들을 이끌어 갔다. 그렇게 지난 24년 이 학교에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렇게 312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치아파스는 물론 멕시코 전역에 진출해서 교회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문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선교사의 마음은 어떨까?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친 그들의 사역의 바톤을 이제 다음 세대 선교사에게 넘겼다. 그리고 스타트하는 다음 세대 선교사의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오! 주님! 광야에서 우리처럼 저들도 배워가게 하소서!”

학생들이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해서 능력 있는 교회의 목양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배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선교사의 가장 큰 능력의 자세는 모범밖에 없다. 선교사들도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간다. 매일 함께 새벽기도회를 하고, 매 학기마다 성경일독 이상씩 하는 성경 읽기 훈련도 같이 앉아 참여한다.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 가면서 학생들은 선교사들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 훈련이 졸업하여 자신의 사역지로 간 졸업생 목회자들에게는 힘이 된다. 그들도 현지 교회에서 교회 목양을 할 때에 성도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초기 신학교 설립 당시 선교사는 멕시코 교회의 현 모습을 보았다. 성도들을 이끌고 갈 만한 신앙적 모범이 없었다.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받은 공식적인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가 적었다. 대부분 성경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 그들에게 고도의 훈련을 받은 모범적 삶을 사는 영적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① “빌립보를 찾아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바울은 성령님의 강력한 간섭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가고 싶은 아시아를 막으시고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발길을 돌려 유럽을 향하는 순간부터 유럽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북음화에 전초 기지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의 간섭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빌립보는 로마 시대에 마케도니아를 대표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완벽한 도시의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비옥한 평원, 그리고 평원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강 그리고 로마에서 이스탄불을 잇는 에그나티아 고속도로(Via Egnatia)를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광개오산에는 유명한 금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B.C. 6세기입니다. 그때는 그리니데스(Krenides)라고 불렀는데 이는 샘물(Spring)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풍부한 빌립보가 그 지역의 '샘물'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미 빌립보는 금광과 풍부한 수자원을 갖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빌립2세가 B.C. 358년(혹 360년 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에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빌립 2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빌립보에 대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특히 빌립보 지역의 금광을 좋아했습니다. 빌립 2세는 빌립보 지역의 금광에 대한 소유권강화와 경비강화를 위해서 도시를 개명하였고 도시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B.C. 168년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가 패배하면서 로마가 빌립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2년에 시저(Caesar)가 사망하자 권력다툼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가 카시우스와 함께 옥타비우스와 안토니를 대항해 빌립보 근처에서 싸웠습니다. 이 전쟁이 유명한 빌립

보 전쟁입니다. 빌립보 전투에서 율리시 시저의 암살자들이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패배합니다. 옥타비우스와 안토니가 로마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 빌립보 전쟁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로 참전했던 시인 호레이스는 훗날 적장이었던 옥타비우스(아우구스투스)의 후원을 받아 문학활동(특히 시작활동)을 하며 뛰어난 작품들을 남깁니다. 그는 로마 후대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활동합니다. 이 빌립보 전쟁은 로마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중요한 전쟁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빌립보 전쟁이 로마의 공화정을 종식시킨 전쟁으로 정리합니다.

이 빌립보 전쟁에서 이긴 옥타비우스는 10년 쯤 지난 후에 옥티움(Actium) 전투에서 자신의 마지막 정적인 안토니 제거하고 황제가 됩니다. 이때 옥타비우스(훗날 아우구스투스로 개명)는 다시 빌립보를 애착합니다. 빌립보를 로마 직할(로마령) 도시로 세우고 이름도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따라 '콜로니아 율리아 비트릭스 빌립보'(그러나 통상은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 퇴역군인들을 빌립보에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를 로마령(직할:the Roman Colony)도시로 세우면서 빌립보 도시는 더욱 크게 번성했습니다. 빌립보는 농업과 상업이 함께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주변 도시 유력한 무역상들이 빌립보로 가서 무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만큼 빌립보는 활발한 교역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포함한 많은 외지인들이 상주했던 도시

였습니다. 특히 빌립보가 로마령(직할) 도시의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면서 많은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대략 세 가지 목적으로 직할 도시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정복한 땅에 전진기지로 직할 도시를 활용했습니다. 새로운 지역 관리 수단으로 직할 도시였었습니다. 다음은 가난한 로마 시민 보호를 위해 직할 도시를 세웠습니다. 셋째로 퇴역 군인들의 정착지로 직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빌립보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직할 도시였습니다.

로마시대 로마령(직할) 도시가 누렸던 특별한 지위는 대단했습니다. 직할도시 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직할도시였던 빌립보 시민들이 누렸던 특혜를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선 빌립보 시민은 로마시민과 동등한 법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당대 로마 시민권은 헬라 문화권에서 귀족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들은 로마 시민들과 같은 특혜들을 향유했습니다. 로마 시민처럼 면세권이 있었고, 항소권도 갖고 있었는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실형이 선고되어도 선고에 불복하고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를 맞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할 때 감옥의 간수가 당황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 직할시 빌립보에 퇴역군인들 정착합니다. 그런데 로마 퇴역군인들 중에는 외국군에서 포로로 잡혀 로마군에 편입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시민권자였지만 시민답지 못했던 것처럼 빌립보교회 성도들도 천국 시민이었지만 천국 시민답지 못했습니다. 빌립보도시 곳곳에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현수막이 있었고 바울이 이말로 성도들을 설득합니다(빌 1:27).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주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NPO와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가난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모세의 시내산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1)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한국의 한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COVID 19가 가져다 준 교회 전반에 걸친 파장이 핵폭탄급이라고 하면 교회 예배와 음악에 대한 파장은 수소폭탄급이라 할 만큼 실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교회에 도전을 던져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교회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방향 속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빚으며 서로의 정당성을 놓고 지금도 열띤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과 각 교회의 현실과 문화에 따라 예배음악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예배와 음악의 본질이다. 물론 지금은 비상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펼쳐지는 일이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런 요소들이 정착해서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뿌리내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상황이 비록 바뀔지라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그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는 절대적인 기준, 즉 영원한 본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을 내세워 현실 상황에 맞추어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와 제도 그리고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함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각 분야 별로 올바른 지도자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예배와 음악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교회음악 지도자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C.S. 루이스가 ‘역사를 잘 이해하면 우리 시대가 무시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론을 펼치듯이 일반적으로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과거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해 교회 예배와 음악 교육을 연구하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예배와 음악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접점이 되는 세 부분 즉, 성경에서 이야기 하는 최초의 공식 예배인 모세와 시내산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내용의 중심으로 전환되어진 초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개신교 예배로의 시작을 고찰 하려 한다.

이 역사적 사건들에 거울을 대고 예배와 음악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또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떠한 도전들이 전개 되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고수해 왔는지 관찰하려 한다. 이것을 통해 오늘의 예배와 음악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전개 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모세의 시내산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1. 역사적 고찰

모세의 시내산 예배, 이것을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로 성경은 이야기 한다(출 24:1-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 하나님과 백성들간의 언약을 맺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증거로 드리

는 예배가 오늘날 공중예배(Public Worship)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소들은 후대의 유대교나,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서 더 상세히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서 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총 5가지임을 알게 된다.

첫 번째는 만남을 소집한 주체는 하나님이고(출애굽기 24: 1-2),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역할이 있음을 이해한다. 즉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각자 모든 역할이 있었다(출애굽기 24:3-6)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던 것(출애굽기 24:7)을 본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확인(출애굽기24:8)한 모습을 보게 된다.

시내산 예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전원이 참여하였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소인을 담당하였다.(출애굽기 24:5) 히브리 예배에서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가져온 언약서를 가져와서 낭독한 말씀에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 하리이다” (출애굽기 24:7) 라는 응답을 행함으로써 각자의 역할 속에 능동적인 참가가 있음을 증거한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자도자들과 몇몇 회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한데 어우러져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participation)가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를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중심이 되어 예배에서 찬양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후에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뛰어난 레위지파를 세워 공식적인 음악기관을 설립하게 된 뿌리라고 추측하게 된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음악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창세기 4:20-21로 아담의 7대 후손인 야발과 유발에 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히브리 예배의 두 요소인 제사제도(animals for a burnt sacrifice)와 찬양(Sacrifice of Praise)이었음을 알게 된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예배에서 찬양을 드릴 때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음을 짐작 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음악 예배(Musical Worship)는 바로 최초의 공중 예배인 시내산 예배가 있기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 이후 드리는 찬양 예배였다.

모세와 그의 누이 동생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애굽의 군병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주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출애굽기15:1,20-21). 이것은 예배에서의 회중찬양의 모체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처럼 히브리 예배의 처음 예배는 음악과 함께 태어났고 예배에서 모든 회중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드높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사야 43:21)을 이룬 예배에서의 올바른 찬양관을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계속)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온라인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프랭클린 그레함, “하나님 언급 안 한 초유의 대통령” 비판

바이든 대통령의 '기도의 날' 선언문 지적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지난 6일 '국가 기도의 날'에 맞춰 발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은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선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초유의 (미국)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슬펐다”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It is hard to believe we have come this far)”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나님을 생략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그는 개인이 자 국가로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레함은 “그 분께서 우리를 창

조하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가능케 하셨다”며 “다른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한 기도는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레함은 6일 출연한 '폭스뉴스 프라임 타임'에서도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신들(some generic Gods)이나 공중의 어떤 힘들(some powers in the air)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며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신 창조주이며,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했다.

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세스(Pete Hegseth)는 그레함 목사에게 “기도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프랭클린 그레함 페이스북 캡처

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지를 묻자, 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분은 기도들을 들으신다. 귀를 기울이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선언문이 바이든이 아닌 백악관 참모가 대신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레함 목사가 바이든 행정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미국 성조기와 함께 성소수자(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게양하도록 허락한 미 국무부에 대해 비판했다.

그레함은 올해 1월 초,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 지도부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과 같은 성별을 반영한 용어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차기 의회 규정안을 발표하자 “창조주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강혜진 기자

바이든 행정부, 텍사스주 불법 체류자 36명 석방 성범죄자 2명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Instagram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관련 지침에 따라, 텍사스에서 최소 2명의 성범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석방되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폭스(Fox) 뉴스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ICE)에 수감된 2명과 벅사(Bexar) 카운티 소재 교도소에 수감된 36여 명의 중범죄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석방됐다.

이들은 경찰 폭행, 가정 폭력, 마약 관련 등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2명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폭스 뉴스는 사법 당국과 이민세관집행국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 “이민세관국이 수감자들을 체포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 보안국은 그들을 풀어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야미 버진(Yami Virgin) 폭스 뉴스 기자에 따르면, 이들 중 두 명은 이민세관국 수감자이며 주 정부 절차를 마치고 풀려났다.

그는 미 연방보안관(US Marshals) 소식통을 인용하며, “세관국 구금 영장에는 반드시 수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요원들은 범죄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에 이 범죄자들은 풀려나 이 곳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진 기사는 구금 영장이 “증거 자료가 없는 구금자나 수감자가 석방될 경우, 연방 정부가 주 및 지방의 법 집행 기관이 이민세관국에 통보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이민세관국이 그들을 데려다가 출생지 국가로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 사우스 텍사스

전직 조사관인 아리스티데스 지메네스(Aristides Jimenez)의 증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집행에 있어 전임 정부들과는 차별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임명된 알레한드로 마요카스(Alejandro Mayorkas)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민간 이민 단속 및 추방’ 지침을 새로 발표하며, 2월 18일부터 90일간 추방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이민세관국이 (불법) 이민자 중에서 ‘테러 또는 스파이 활동에 관여’ 또는 ‘2020년 11월 이후 국경을 넘어 중범죄로 유죄 판결’ 전력이 있거나, ‘폭력조직,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 추방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아울러 이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추방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시 지침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시행 지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밖으로 추방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석방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그레그 에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무모하고 위험하다”면서 “만일 중범죄자들이 풀려났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바이든 행정부, 의사당 내 국가 기도의 날 개최 ‘불허’

패트릭 마호니 목사 “70년 만에 처음... 언론의 자유 위협 처해”



미국 국회의사당 ©Alejandro Barba / Unsplash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가 기도의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부되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즈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방위연합(Christian Defense Coalition) 이사인 패트릭 마호니(Patrick Mahoney) 목사는 6일 열린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의사당 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불허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허가가 거부된 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공개적인 증인(public witness)이 없을 것”이라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위협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마호니 목사는 미국 오순절 교회 매체인 ‘카리스마뉴스’가 입수한 성명에서 “백악관(People’s House)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행사를 위해 미국 국민에게 복구되었다”며 “국가 기도의 날에 미 국회 의사당에서 공공예배와 기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모든 미국인은 국가 기도의 날에 국회의사당에서 공공

기도를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가라며 질문해야 한다. 특히 의회가 지정한 국가적 기념행사일 때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금지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나는 백악관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수정헌법 1조가 국회의사당에서 다시 한번 축하받고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마호니 목사에 따르면, 의사당 건물에는 지난달 2일 성금요일 예배를 개최하는 것도 허가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카리스마 뉴스에 따르면 일부 교회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기도의 날 예배 개최가 불허된 데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2021 - 2022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4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인원 00 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1@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1년 4월 10일 ~ 5월 31일
- 선발 결과 발표: 2021년 7월 25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1년 8월 15일 예정 (추후 발표)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박상학 대표 “자유민주주의, 북한 인민에 알리는 게 잘못인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말했다.



박상학 대표 ©뉴스시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을 기념해 행동하는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고한 대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에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120년 동안 3만여 명 배출” 장신대 개교 감사예배



개교 120주년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노형구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직무대행 김운용, 이하 장신대)가 개교 12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를 11일 오전 교내 한경직기념 예배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교기념 감사예배, 2부 기념행사, 3부 120주년 기념 전시회 개관식 순서로 진행됐다. 총장 직무대행 김운용 교수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개교기념 감사예배에선 장신콘서트콤플라이어의 화답송, 다 함께 '다 감사드리세'(잔송가 66장) 찬송과 신앙고백을 한 후, 박봉수 목사(장신대 이사)의 기도가 있었다. 이어 장신콘서트콤플라이어의 응답송에 이어 김도훈 목사(장신대 교수)의 성경복독, 다시 장신콘서트콤플라이어의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이어졌다.

설교는 예상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갈렘산에서'(열왕기상 18:41~46)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신 총회장은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비춰보는 것이다. 곧 인류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라며 “1901년 마포삼일 선교사가 2명의 제자를 두었던 신학교는 120년이 지난 뒤 현재 2,100여 명의 재학생이 다니고 있는 장신대로 발전했다. 현재 배출된 인원만 31,000여 명이나 된 장신대는 일제강점

기, 6.25 전쟁 등을 거치며 한국교회 아픔을 고스란히 지고 간 학교”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나온다. 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엘리야만 빗소리를 들었다. 엘리야만이 영의 귀를 가졌다는 뜻인데, 그만 특별한 사람인가?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는 남이 듣지 못하는 영적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손 만한 작은 구름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데서부터 있게 되고,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며 “다윗은 골리앗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돌을 던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머리, 가슴,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녕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정상에는 ‘멀리 보면 모든 것을 내다 볼 수 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며 “여러분의 메마른 땅을 종일 갈아가는 인생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지니길 바란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축복, 능력의 소나비가 쏟아질 것이라 응답을 기대하자”고 했다.

노형구 기자

사랑의교회, 총신대에 발전후원금 2억 원 전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오는 15일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총신대학교(이재서 총장)에 발전후원금 2억 원을 9일 4부 주일예배 시간을 통해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모든 성도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하다. 오 목사님이 작은 물질이라 하셨는데 큰 후원을 해주신 것”이라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님을 비롯해 당회 장로님과 사랑의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한 기금을 초월한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담겼기에 참으로 소중하다. 총신대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시 힘을 내라는 격려의 뜻이기에 감사하고 열심히 더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정현 목사는 “새 출발을 시작한 총신대를 위해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작은 헌신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총신대는 인재 양성의 출발점인 모판이다. 총신대가 발전할 때 한국교회와 교단이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총신대 이재서 총장을 비롯해 손병덕 부총장, 신대원 김창훈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훈 부총장은 “더 열심히 한국교회 목회자를 세우겠다”고, 손병덕 부총장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Advertisement for Torrance Joongyo Church featuring Pastor Kim Woon-jun.

Advertisement for Cornerstone Church featuring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O.C., 엘바인 지역

Advertisement for CMF Church featuring Pastor Kim Cheol-min.

Advertisement for Galbori Saeseung Church featuring Pastor Min Seung-gi.

Advertisement for Gamsahan Church featuring Pastor Goo Bong-ju.

Advertisement for Namgamu Benael Church featuring Pastor Oh Byung-il.

Advertisement for Namgamu Dongshin Church featuring Pastor Baek Jung-woo.

Advertisement for Namgamu Sunbogeom Church featuring Pastor Lee Il.

Advertisement for Namgamu Saesomang Church featuring Pastor Kim Seung-won.

Advertisement for NEXT Sarami Church featuring Pastor Wang Sang-yun.

Advertisement for LA Immanuel Church featuring Pastor Choi Sun-gil.

Advertisement for Nlppurunsong Church featuring Pastor An Chang-hun.

Advertisement for Namgamu Nlssarang Church featuring Pastor An Sang-ho.

Advertisement for Da Gamsa Church featuring Pastor Kim Il-gwon.

Advertisement for Dاون니제일 Church featuring Pastor An Seung-bok.

Advertisement for Laguna Hills Yehungam Church featuring Pastor Lim Hak-cheon.

Advertisement for Mijubeseon Church featuring Pastor Lee Seung-dam.

Advertisement for Bettel Church featuring Pastor Kim Gyo-yo.

Advertisement for Saemul Church featuring Pastor Jeong Gi-ung.

Advertisement for Elbain Eunuri Church featuring Pastor Park Seung-woon.

Advertisement for Elbain Chimre Church featuring Pastor Han Ki-hong.

Advertisement for Orenjeka Wotaehang Church featuring Pastor Nam Seung-joo.

Advertisement for Eunheohan Church featuring Pastor Han Ki-hong.

Advertisement for Sunghyeon Church featuring Pastor Shin Hyun-gu.

Advertisement for Hamaekneung Church featuring Pastor Park Hun.

Advertisement for Jeongeumae Church featuring Pastor Han Ki-hong.

Advertisement for the Christian Daily News with contact information.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에어포스 원!



안 성 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TV에서 방영하는 오래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헤리스 포드 주연의 제목은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테러범들이 들어와 대통령을 인질로 삼고 자신들의 나라인 카자흐스탄의 독재자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놓치게 되고, 결국 대통령 가족과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협상을 하려 합니다. 비상 탈출작술로 비행기에서 떠난 줄 알았던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 남아 있었고, 결국 베트남 참전용사였던 대통령의 활약으로 비행기 안의 테러범들을 소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영화이기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제 마음에 뭉클하게 와 닿았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은 결국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에어포스 원과 군용 수송기 간에 줄이 연결되어 그 가운데 대통령의 가족들이 이동하고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동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군용 수송선에 들어오는 순간,

군용 수송기 조종사가 백악관으로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이 안전하게 이동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어포스 원이다!" 비행기 자체가 '에어포스 원'이라기보다, 대통령이 탔기에 '에어포스 원'인 것이지요. 그 장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영적인 에어포스 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요!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에어포스 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내가 에어포스 원이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절하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7) 미국 대통령이 탄 군용 수송기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송기를 통하여 전달되는 대통령의 명령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좌절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질그릇 같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크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씨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그네, 적은 수, 또는 약자의 모습이 많습니다. 애굽의 힘은 최강이고 바로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종과 노예의 모습으로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을 응징하셔서 홍해바다에 바로와 군사들은 다 수장되어 버렸고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힘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의(義),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7) 자녀의 능력은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워지고, 또 얼마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느냐에 달

려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실 수 있는 아با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에서나 뵈는 아버지 정도로 믿는 사람입니까? 이웃집 아버지에게 학교 등록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옆집 아줌마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버지, 아줌마에게 인생의 중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에게는 형식과 외모, 체면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담대하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1-13) 아버지는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전갈을 주지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 생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버지, 아줌마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못 누립니다. 신약성경의 시작,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마 1장 23)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 마지막 20절은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로 끝이 납니다. 신앙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가 강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옆집 아버지씨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 지도자들의 굴복



김 인 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일제는 1937년 7월 노구교(蘆溝橋 : 마르코폴로橋)사건을 일으켰다. 노구교사건이란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이 북경 교외의 노구교 부근에서 야간연습을 하고 있을 때 중국군이 기습을 가해 와서 일본 관동군 정예부대가 중국군 진영을 습격했다고 허위 날조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핑계 삼아 중·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왕에 시작된 신사참배를 교회에까지 확대할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남차랑(南次郎) 총독은 도지사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신궁에서 국위선양을 위한 기원제를 올리고, 조선과 일본의 융합을 위해 일만일체(日滿一體 : 일본과 만주가 한 몸이다), 선만일여(鮮滿一如 : 조선과 만주가 하나이다), 내선일체(內鮮一體 :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다)의 표어를 주장하였다. 그는 우선 각지에 신사를 건

립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하여, 각 부(府), 읍, 면에 신사를 세우는 1면 1신사 정책을 폈다. 동시에 각급 관공서, 학교, 파출소, 주재소 등지에 신궁대마(神宮大廟)를 넣어 두는 간이 신사 격인 신책(神柵)을 설치하게 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관청을 통해 신궁대마를 민가에까지 강매하여, 각 가정에 신책을 설치하고 매일 아침 여기에 참배케 하였다. 매달 6일을 애국일로 정하고 국기계양, 국가봉창, 조서봉독, 동방요배, 근로봉사,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1938년 10월에는 황국신민서사(皇國國民誓詞)를 제정, 제창하게 하였고, 12월에는 일본 왕 사진을 전 학교에 배포하여 예배를 강요하였다. 1938년 2월에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정했고, 3월에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학교의 명칭, 교육의 내용을 일본 학교와 같이 하여 조선어의 상용(常用)을 금지시켰다. 5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 적용되었고, 7월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 조직되었다. 1940년은 일본 기원 2,600년으로, 이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성(姓)을 개명하는 소위 창씨개명(創氏改名)을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 연행이 시작

되었다. 이러한 사회 형편에 따라 일제는 마지막 남은 보루인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전 조선에 50만에 달하는 예수교 신자들은 시국에 대하여 대단히 냉담한 태도를 가졌고 신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국가적 행사에 참가하는 일은 기독교의 계명에 위반되는 일로 여겨 긍정하지 않았다. 또한 혹은 예수를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잘 살피서 불경죄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교회를 옥죄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이제 마지막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동안 갖가지 박해를 견디어 왔는데 이 마지막 억압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관건이었다. 신사참배, 그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상승배였다. 1935년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문제를 선명히 규명하려 할 때, 총독부 외사과(外事課)에 근무하는 일본인 기독교인 대전(大田)이 총독부를 대신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신사는 우상이 아니고 애국적 행위인데 왜 거부하느냐고 물었다. 그 때 교회 지도자들은 만일 총독부가 신사에 영(靈)이 없고 애국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성명서를 낸다면 우리도 참배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는 "영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이상 앞

에 무릎 꿇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에 대해 생명을 걸고 투쟁해야만 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역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의 시기에는 현실에 타협하고 순복하는 자들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먼저 신사참배를 수용한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었다. 이 교회는 1918년 "신사는 다른 신들을 위한 곳이니 참배할 수 없다."는 한국 천주교 장정(章程)을 작성하였고 신사는 종교임을 명시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3국 동맹을 맺은 후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1936년 5월 교황 비오(Pius) 12세는 포교성(布教省)을 통하여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이를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일본 제국 안에서 의식서는 신자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즉 신사에서 행하는 의식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다. 교육받은 자의 상식에 의하면, 신사의식은 단순한 애국의 표현이며 황족과 국가의 훈공자(勳功者)에 애친(愛親)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의식은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뿐이며, 가톨릭 신자는 이들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로써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 길

을 넓게 열어 두었다. 이어 안식교가 1936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였고, 뒤이어 성결교회, 구세군, 성공회 등이 뒤를 따랐다. 장로교회 다음으로 교세가 컸던 감리교회도 1936년 6월 개최된 제3차 연회에서 당시의 총리사 양주삼(梁柱三) 목사가 총독부 초청 좌담회에 다녀온 후 신사참배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감리교 내에서 반발이 일어나자, 1938년 9월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신사참배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연전(年前) 총독부 학무국에서 신사참배에 대하여 조희한바를 인쇄, 배부한 일이 있거니와, 신사참배는 국민이 반드시 봉행할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을 잘 인식하였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던지 신사참배가 교리에 위반이나 구애됨이 추호도 없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마지막 투쟁에 동지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함께 들어와 선교하며 동고동락했던 감리교회마저 맥없이 일제에 무릎을 꿇자, 장로교회만이 외롭게 홀로 남게 되었다. 일제가 장로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 회유와 폭압의 정책을 썼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어려운 시대에 어린 조선 교회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굿모닝
 머그컵
 메모지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병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1-7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외도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성령 받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철저히 하고 온전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바울은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죽기를 작정하고 복음전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22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육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중략)...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했습니다. 그는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순간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증인되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고린도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세고 큰 마귀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야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눈에서 고기비늘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이 온전히 그를 사로잡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바울을 사도될 자격이 없다며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의 간교한 수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보면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는 그곳에서 그의 호구지책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취직할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때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도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 이들도 고린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먼저 와 있었던 이들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이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바울을 고린도로 가라 명하셨고 그 바울의 선교 뒷바라지를 위한 사람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24-27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일이라”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자 아볼로를 전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더 많은 선교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셨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하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3:11-12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킵을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는 회개운동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표시로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혼이 진리안에 결실되어 하늘나라 창고로 추수해 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쭉정 이들은 거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아볼로의 제자였던 열두 사람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점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성령에 붙잡힌 삶입니다.

헐기와 정욕, 교만, 허세, 자존심 같은 것들은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만일 끝까지 성령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신 것 같이(삼상 16:14)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후회될 일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 성령의 지시, 인도,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살아왔는지를 자문(自問)해 보시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회개하고 주님 손에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의 제물되기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며(행2:38-39)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이 되시고(롬8:16)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요17:24).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후 13:5)”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 up \$20 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17) <조선구마사> 논란 (2)

<조선구마사> 사태로 드러난 중국 문화의 반기독교적 속성

중국 문화침탈 취약 이유, 사대와 굴종의 역사 때문 사회주의 성향 현 집권자들 '중국몽' 동참으로 심화 중국 영향력 늘수록, 자기반성과 타자존중 잃은 채 절대선 여기는 원죄적 심성 침잠, 회개 필요성 상실

◆중국의 문화적 퇴락: 자기반성 기회를 박탈한 문화대혁명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만큼 자국 문화의 유형적 측면에 대한 자만감이 극에 달한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상 허세로 가득한 이 자만심의 기원은 '주제 파악'의 기회가 완벽하게 결여된 중국 특유의 공산주의 역사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60-70대 노인 대부분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에 몸소 참여한 이들이다. 당시 10대 청소년기를 보냈던 이 세대는 홍위병 세뇌교육에 철저하게 물들어 인민재판을 주도했다. 인민재판은 '자아비판'을 통해 공산당에 반하는 생각이나 행적이 드러난 이들을 잔혹하게 처단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현상이었다.

당시 자아비판은 재판에 회부된 자가 자발적으로 공산당에 반대한 행적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선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이 해당 인물을 고발하고, 고발된 이가 군중의 위협과 분노에 밀려 마지못해 자신의 과거 언행을 자백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다수가 인민재판에 회부된 경우 서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같이 끌려온 가족이나 친구의 죄목을 더 크게 부풀려 고발하고 이를 각자 인정하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영화 <패왕별희>(1993)에는 경극 배우 샤오러우(장풍의 분)와 그의 동생 데이(장국영 분)가 함께 인민재판에 회부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두 의형제는 서로를 비난하고 고소하며, 의형인 샤오러우는 자기가 살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던 자신의 아내 쥐셴(공리 분)까지 배신

한다. 이 장면은 문화대혁명 당시 인민재판의 처참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패왕별희>를 감독한 첸카이거는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으로 세뇌되어 활동한 인물로,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바를 바탕으로 이 장면을 재현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중국인들, 특히 인민재판을 주도했던 홍위병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반성=비참한 죽음 혹은 사회적 매장'이라는 도식이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그들의 후손들, 즉 현재 중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세대인 40대, 50대에게도 전수되었다.

결국 오늘날 중국 기성세대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할 뿐더러, 타인이 자기 문제나 한계를 지적해도 절대로 수긍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자기정당화에 빠져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세계관으로 확장된 결과가 현재 중국의 일방적인 자민족중심주의 외교와 패권적 역사왜곡, 문화왜곡 행태이다.

여기서 더 심각한 점은 문화대혁명이 중국인들로부터 자기반성의 심성을 빼앗아갔을 뿐 아니라, 중국 문화가 가지고 있던 나름의 형이상학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도덕적·윤리적인 사상전통 전반을 말살해 버린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에는 제대로 된 정신문화라고 할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중국의 문화수준은 대개 그들의 옛 것을 피상적으로 우려먹는, 서구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요소들을 베껴오든가, 아니면 마오쩌둥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온 공산주의 사고와 습성을 미화하고 포장하는 데 머물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드라마 <조선구마사>. ©SBS

러 있다. 이처럼 중국문화가 정신적·무형적 영역에서 빈곤하기 그지없는 상태로 떨어지면서,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역시 급전직하하였다. 더 이상 주변국들이 중국의 것, 중국의 문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산업이 크게 성장한 것은 가격 경쟁력 때문이지, 품질이나 브랜드 파워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중국문화의 흡인력과 영향력이 소멸되자, 자기반성을 할 줄 모르는 현재 중국의 주류 세대가 택한 대응법은 주변국 영토와 문화유산을 자기 것으로 강탈해 흡수하는 침략적 방편이다. 문화적으로 주변국에 베풀고 감화시킬 것이 없기에, 문화전쟁에서 뒤로 밀린 상태이기에, 유형적 요소를 강탈하여 그 손실을 메우려 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화적 영향: 반기독교적, 비윤리적 심성의 확산 우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중국문화의 이런 유물론적이면서 자만심 가득한 성향은 그 문화적 영향력에 지배되어 살아온 중국인들의 온전한 인격 형성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한다.

단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적대시한다는 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등하고 윤리적인 인격대 인격 관계를 배우고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회퍼는 기독교인들의 복음 실천에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논의한 바 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 행위가 사회라는 역사적 현실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맺어지는 상호 초월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인간 인격은 그 인식적 한계 때문에 타자를 그 자체로서 대상화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는 자아에게 초월적이다. 따라서 인간이 타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동일화하는 모든 행위는 근원적

으로 악하다. 이러한 판단이 본회퍼 윤리사상의 중추를 이룬다.

그러하기에 그는 기독교적 윤리 실천이 반드시 인간 실존의 주요 구성요소인 사회적 정황, 문화적 정황을 유념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본회퍼가 바라본 인류 전반의 사회적·문화적 정황의 본질은 원죄로 인한 타락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문화반성 시도는 항상 인간의 원죄적 본성을 애도한 심령으로 진지하게 되뇌어 수긍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원죄란 인간이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간 데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과 의 계명을 거역한 그 죄성은 오늘날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를 파괴하는 월권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원죄 개념을 중심에 둔 본회퍼의 문화이해 관점으로 볼 때, 문화대혁명 이후의 중국 문화는 인간의 원죄적 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문화로 진단된다.

이런 비윤리적 문화풍토를 당연시하는 중국이 최근 외교적으로 고립된 것은 어찌보면 필연에 가깝다. 돌아보면 도광양희(翕光養晦)하면서 중국의 퇴락한 문화적 본성을 감춰온 덩샤오핑의 정치력이 진정 대단하게 여겨질 따름이다.

한국은 이런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단히 취약하다. 중국으로부터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사실과 더불어 그렇게 중국의 문화적 지배력 아래 놓이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온 사대와 굴종의 역사 때문이다.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로 자처해온 조선의 전근대적 문화풍조는 오늘날 '중국몽(中國夢)'에 동참하기를 꿈꾸는 한국의 사회주의 성향 집권자들에게 의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 문화자본 침탈 문제는 단순히 우리 전통문화 품목 몇 가지를 빼앗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중국 문화의 영향력

이 우리 사회에 강해질수록, 우리는 자기반성의 지혜와 타자존중의 윤리를 잃어버린 채 자기가 절대선이라 여기는 원죄적 심성에 더 깊이 침잠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교회 내 기독교인들이 회개의 심령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한국사회 구성원 전반이 윤리적, 문화적 자기반성 기회를 상실하는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교회와 사회 모두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뒤로 후퇴시키기까지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조선구마사>를 비롯해 중국의 문화침탈의 도를 담은 여러 대중문화 콘텐츠가 지탄받고 외면받는 상황이 다들스럼기 그지없게 여겨진다. 이는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거부한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속에 자리잡고 있는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속성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 및 철학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실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중화사상으로 본 세계관. 공산당에 의해 주도된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의 자민족중심주의는 더 극단적이고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위키



영화 <패왕별희> 중 문화대혁명 인민재판 장면. 경극배우인 데이(장국영 분)가 의형인 샤오러우(장풍의 분)와 그의 아내 쥐셴(공리 분)을 배신하고 자아비판하도록 고발하는 장면.



시진핑 중국공산당 주석이 내건 정치 슬로건 중국몽. 자기반성이 결여된 자만 가득한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 문화관과 세계관을 대표하는 문구이다. ©kochina21.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설교의 전문성

교회 위기의 시대, 진짜 실력 발휘하는 '설교 전문가' 되려면

청중 존중하는 설교 쓰기

1. 무엇보다 쉬워야 한다
2. 의미들이 있어야 한다
3.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전문가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다. 김난도 교수는 2021년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로 '브이노믹스'를 선정했다.

쉽게 말하면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검증된 것을 찾는다. 1등에 대한 몰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위기로 인해 위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더 부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다.

많은 골목 카페들이 문을 닫을 때 스타벅스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아마존은 코로나19 기간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시장에 늦게 도전한 롯데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이베이 코리아 전라기획본부장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서다.

전문성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문가가 자신의 것이 있는 사람이다. 남과는 다른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

교회의 위기는 곧 목회자의 위기다. 위기 속에서 목회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에게 최고의 무기는 설교일 것이다. 설교는 목회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다.

그러나 대부분 목회자에게 설교는 능력을 발휘하는 장소가 아니라, 숨고 싶은 장소가 될 때가 많다. 설교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설교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설교를 배우는 것은 더 어렵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적으로 설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목회자에게 좋은 도움이 될 책이 출판되었다.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이다. 저자 김도인 목사는 설교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2009년 아트설교연구원

을 설립해 많은 목회자에게 설교 글쓰기의 중요성과 설교 글을 구성하고 쓰는 법, 제대로 된 글을 쓰는 실제적인 법 등을 가르쳐오고 있다.

저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설교의 중요성을 드러나게 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를 온라인에 업로드한다. 설교를 업로드한 목회자의 설교는 교인뿐 아니라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구라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설교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간 많은 설교 글쓰기 책을 써왔던 저자는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에서, 설교 글쓰기의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1장에서 설교 글쓰기에서 기초가 되는 7단계를 예문과 함께 설명한다.

1단계, 질문에 답하라

'왜?'라는 질문은 설교 글을 쓸 때마다 던져야 한다. 실제로 설교에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질문에는 답변을 꼭 해야 한다.

2단계, 한 단어의 특징을 살리라

수많은 자극과 정보로 가득한 이 시대에 성경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어 해석만 담은 단순한 설교에는 청중이 관심과 흥미를 기울이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한 단어의 특징을 활용한 글쓰기는 말씀을 낯설게 설명하면서 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3단계, 두 단어의 차이점을 드러내라

예수님의 비유법 중 두드러지는 장점은 차이점을 잘 활용하신 것이다. 차이점을 활용한 글쓰기는 한 단어의 특징을 활용한 글쓰기보다 그림 언어로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차이점을 활용하는 글에는 서로 대조와 대비가 되는 단어들 사용된다.

4단계, 낯설게 쓰라

어떤 것이든 낯설어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설교자가 설교 글을 쓸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낯설게'이다. 설교 글을 낯설게 쓰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이 있다. 지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무리

낯설게 써야 한다고 강조해도 쓸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낯설게 쓸 수 없다.

5단계, 반전의 모미를 주라

설교에서 성경 해석에 주안점을 두면, 반전은 그리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설교를 문학 작품처럼 쓰고자 한다면 반전은 기본 요소이다. 영화나 드라마에 반전이 없으면, 관객이나 시청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설교자 역시 시대에 맞게 설교 구성과 글에 반전을 사용해야 한다.

6단계, 개념으로 쓰라

자신만의 개성있는 콘셉트와 연출을 중시하는 콘셉서가 늘고 있다. 사람들은 구구절절 설명하는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콘텐츠에 더 열광한다.

콘셉트를 설교에 적용하면, '개념'을 활용해 설교하는 것이다. 이제는 설교를 개념으로 해야 하는 시대이다. 독자들은 이제 평범한 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긴 글은 읽지 않는다. 두꺼운 책에는 손을 건네지 않는다. 그것을 읽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읽을 만한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다.

7단계, 2단계로 쓰라

故 옥한흠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2단계로 했다. 1단계에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석 중심으로 된 설교 글을 완성한다. 2단계에서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중의 필요와 고민을 분석해 설교 글을 완성한다.

2단계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본문은 물론 청중의 필

요까지 충분히 파악한 뒤 설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설교자는 하나님과 청중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존중한다는 것은 잘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관계가 존중의 시작이다. 설교자가 청중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설교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청중을 존중하는 설교 글을 쓰기 위한 세 가지 선결 조건을 말한다.

- 첫째, 쉬워야 한다.
- 둘째, 의미가 있어야 한다.
- 셋째, 청중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청중을 존중하는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 글쓰기가 필요하다. 설교 글쓰기를 공부할 때 잘 들리는 설교도 할 수 있다.

경영전략 컨설턴트 김용섭은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공부를 찾는다고 말한다. 요즘 자기계발 서적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준비된 위기는 결코 위협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다.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변화 시키기를 바란다. 전문가가 위기의 시대에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모두가 설교의 전문성을 갖추고 행복한 목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 김도인 꿈이 | 224쪽

남의 글을 읽는 설교는 이제 그만, 내가 직접 쓴 글로 설교하면 목회자가 행복해진다.

목회자들의 깊은 고민을 잘 아는 저자는 설교 글쓰기의 A부터 Z까지를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글쓰기 초보였던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 글쓰기에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글쓰기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또 도전해야 하는 일임을 알린다.



©픽사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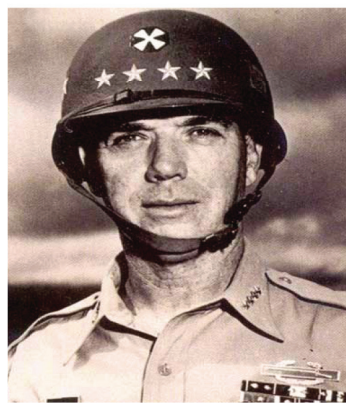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족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공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 대면 또는 zoom 비대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연합)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연합)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통일부교육위원



(구출구제)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정치)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홍보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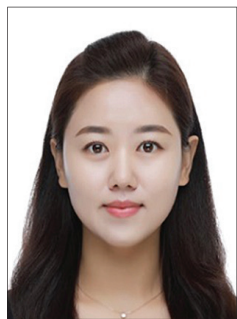
(지하교회)
강석진 목사
극동방송



(영상문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영어2세)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증언)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총괄)
박상원 목사
GBMW



주관: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협력: 기독교동작교회

협찬: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 생중계